



## 하나님의 가족

아셰르 인트레이터



저희는 이번 달에 독일 뮌헨에서 열린 글로벌 개더링에 참석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표자들이 왔는데요, 중국과 여러 아랍 국가에서도 왔습니다. 우리 친구 데이비드 데미안이 주도로 이 개더링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국제적 에클레시아에 대한 깊고 넓은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간 우리 팀에게 이 주제로 기도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히브리어로 기도했고, 이 기도는 여러 언어로 통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대 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 **엡 3:14-15 (현대인의 성경)**. 15절의 “아버지”와 “가족”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라면 누구든 자기 자녀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행복해 하고, 자기 자녀들이 불화하여 분열할 때 마음 아파합니다.

## 아버지는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 우리의 하나 됨과 서로 사랑함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가족은 하늘의 정체성과 땅의 정체성 둘 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아의 피로 함께 모이게 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이고 국제적이고 천상적인 정체성으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졌습니다(엡 2:6).

그렇지만 인간적이고, 지상적이며, 아브라함의 대가족으로서 족속적인 정체성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으로서의 에클레시아에 대한 바울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갈 4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들 중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 12:3)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17:5)라고 부르시며 그의 이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길게 만드실 때, 확대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된 그 여러 민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 축복받은 지상의 모든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바로 예수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아브라함의 대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 아브라함의 대가족

주님은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삼촌과 사촌이 생기는 과정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아께서 그냥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바로 내려오시지 않고, 태어나시고 길러지시고 유년기와 사춘기를 겪으신 것입니다. 진짜 족속적 가족 같은 느낌이 국제적 에클레시아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 된 아랍 크리스천과 메시아닉 유대인 신자들이 국제적 교회 에클레시아에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는 정체성의 일면일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개더링의 한 순서 중에 저희 아랍인과 유대인이 함께 결속하여 국제적 몸을 축복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 된 가족,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서 비롯된 대가족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한 가족이 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들과 약속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느껴진 강력한 순간이었습니다.

## 무슬림의 피와 알 악사

*바삼 타월 (게이트스톤 협회에서 발췌)*



우리 모두는 알 악사 사원이 아무런 위협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경찰 덕분에 알 악사 사원은 중동에서 가장 안전한 모스크이다.

오늘날 우리는 전지전능한 알라에게 그를 위해 순교자로 죽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헛되고 불경스러운 관념으로, 공허한 슬로건의 제단, 즉 “알 악사 사원이 위협에 처해있다.”는 거짓말의 제단에 우리 아들과 딸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있다.

이슬람의 위선과 정치화가 우리 이슬람 교주들로 하여금 쿠란의 구절들을 교묘히 오역하도록 만들었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알라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다. 이슬람을 살인과 우상숭배에 경도된, 충성스러운 무슬림들의 생명보다 알 악사 사원의 돌들을 더 거룩히 하는 일에 경도된 무시무시한 종교로 제시하는 성직자들이 있다.

쿠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 그들이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라의 말씀과 무함마드의 예언 실

현의 살아있는 증거인 그들의 귀환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유대인과 싸운다. 이것은 우리가 알라의 소원과 싸우고 있다는 의미이다.

쿠란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택함 받은 민족이며 그 땅의 상속자라고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왜 그것을 부인하고, 쿠란이 “팔레스타인” 혹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말하지도, 심지어 암시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

유대인들이 신의 개입 없이 돌아온 것이라면, 그들은 전쟁 중이나 그 이후에 그들을 공격한 아랍군대를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승리가 바로 알라가 그들의 편에 있다는 증거다.

두 번째 칼리프 오마르 빈 알-카탐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그와 그의 모사 카압 알-카바르(이슬람으로 개종한 유대인) 둘 다 유대인의 성전의 위치가 오늘날의 알-악사 사원 옆인 성전산이었음을 확인했다.

## 성경적 청지기정신 – 랍 파커 [1부]



캔사스시티 국제기도의 집의 랍 파커가 리

바이브 이스라엘에서 성경적 청지기정신에 대해 가르치는 동영상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이해가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는 열쇠입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 언약과 논란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도성을 놓고

오래 계속되고 있는 논란의 역사와 신학을 탐구하는 이 새 영화 시리즈를 추천 드

리고 싶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http://www.covenantandcontroversy.com/\)](http://www.covenantandcontroversy.com/)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청해 보십시오!

<https://vimeo.com/141013699>